

CONTENTS

2010 겨울호 Vol. 19호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김태현

실무위원

마경희 · 민현주 · 신선미 · 전기택
이미정 · 이선주 · 홍승아

편집인

김은경

기획 및 편집

이경식

디자인 및 인쇄

대한정보인쇄(주)
TEL. (02)2632-0416~8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원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002 권두언 | 김태현

기획특집

2011년 전망

- 004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 | 홍승아
- 011 2011년 여성일자리 전망과 과제 | 김종숙
- 017 여아 안전을 위한 부모와 학교의 역할 | 이미정

이슈브리프

- 024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2년: 현안과 과제 | 마경희
- 032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과 공정사회 | 박선영
- 037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과제: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 김혜영
- 042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현황과 개선과제 | 박자경
- 047 생애 · 생명, 여성 | 김정희

국제리뷰

- 056 여성대통령과 여성주의 리더십 | 배선희
- 060 글로벌 여성포럼 | 최유진
- 064 개발의 촉매제로서의 원조와 젠더 | 김진영

연구노트

- 068 여성정책포럼: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2010. 11) | 장미혜
- 072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I-IV) | 오은진
- 075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 변화순

여성정책동향

- 082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4/4분기) | 문희영
- 087 2010 연구과제 소개
- 090 2010 연구보고서 목록
- 092 KWDI 동정

상시안내정보

- 096 여성연구 · GSPR · 젠더리뷰 투고 안내
- 099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김 태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 2010년은 ‘녹색성장시대 여성일자리 확대와 일가족양립 기반 강화’, ‘휴먼뉴딜을 위한 젠더 관점의 사회통합 기반 구축’,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중점연구 사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중점연구방향을 중심으로 정부의 장기적 국정과제인 녹색성장과 휴먼뉴딜을 보다 여성적 관점에서 조명함과 동시에 2010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데 연구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노력을 정착시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과 같은 정책추진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고, 여성의 관점에서 ODA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세계중심국가로서의 역할에도 기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새해에는 우리사회 트렌드와 국가정책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성일자리 확대 및 일과 가족의 양립지원, 저출산·고령화·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발굴, 사회통합을 위한 젠더적 관점의 시스템·문화 구축, 성주류화 제도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 목표로 하여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젠더리뷰 이번호에서는 2011년의 주요 정책분야인 저출산·일가족양립 분야와 여성의 일자리, 여아의 안전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가지 정책분야는 여성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도 중점분야입니다. 또한 2010년에 주요이슈로 다루어진 사회문제 가운데 성인지예산, 군가산점제, 여성장애인문제를 이슈브리프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국제리뷰에서는 최근 브라질의 여성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 브라질 내각의 변화에 대한 리뷰와 G20 정상회의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문제점들, 그리고 제4차 ODA 서울컨퍼런스에 대한 개요를 담아보았습니다.

2010년 주요과제를 소개하는 연구노트에서는 여교수채용목표제, 사회서비스, 탈북여성에 관한 포럼과 세미나의 개최배경과 내용을 각각 포함하였습니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국내의 법제도적 장치나 학문적·정책적 성과가 이미 축적되어 있어 성숙한 단계에 와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 또한 이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한국은 양성평등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도약을 이루어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을 제고해야 할 때입니다. 2011년이 여러분과 한국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